

2011년 4월 ~ 6월 제37호 소식지

★ 성프란치스코의집

작은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가는

가족 ... FAMILY

그저 함께 있다는 자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CONTENTS

2011

s.u.m.m.e.r

2... 목차

3... 여는 글

- _ 새로운 가족
- _ 하늘방 새로운 가족
- _ 햇님방 새로운 가족

6... 우리들의 이야기 I

- _ 또 하나의 가족 '가정위탁'

8... 우리들의 이야기 II

- _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10... 우리들의 이야기 III

- _ 가족 사랑도 플러스(+), 성프란치스코의 집 사랑도 플러스(+)
- _ 엄마의 복 짓기

12... 라파엘의 그림세상

13... 당신이 머무는 자리

후원회 미사 안내

성프란치스코의집 또 하나의 가족인 후원자·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위한
후원회 미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봉헌됩니다.

날짜 : 8월 18일 / 9월 15일 / 10월 13일

시간 : 19시 30분

장소 : 대연성당



새로운 가족



가족(家族)

가족은 대체로 혈연이나 입양, 결혼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일컫는다. 집단을 말할 때는 가정(家庭)이라고도 하며, 그 구성원을 말할 때는 가솔(家率)이라고도 한다. 가족을 구성하는 식구의 수나 범위에 의해 소가족(핵가족)과 대가족으로 나뉜다.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면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떡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겨운 하루를 보낸 내 가족들의 낮은 숨소리 어린 날 보살펴 주던 내 누이의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여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누운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될 그때의 짐 이제의 힘이 된 고마운 사람들 사랑해요, 우리. 고마워요, 모두. 지금껏 날 지켜준 사랑 행복해야 해요, 아픈 없는 곳에 영원히 함께여야 해요. 사랑해요.

이승환_가족 중에서

예전의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했지만 요즘은 혈연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을 가족이라 하기도 하고, 기업이 고객들에게 가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가족’,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아이 엠 샘’, ‘가족의 탄생’ 등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가 꾸준히 제작되고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걸 보면 가족이라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 간 유대관계가 끈끈하죠? 가족이라는 건 곁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든든한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가족만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 줍니다.

성프란치스코의집 역시 혈연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함께 하기에 ‘가족’이라 부릅니다. 또한, 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과 시간 나눔을 실천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 자원 봉사자 여러분이 성프란치스코의집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프란치스코의집은 대가족입니다. 이 대가족과 함께 할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하늘방

새로운 가족



이재희 생활재활교사

봄에 심은 곡식과 나무들이 저마다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계절 그리고 저희 집 이용자들도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자신의 색깔을 더해가고 있는 계절에 인사드립니다. 하늘방의 새로운 삼촌 이재희 생활재활교사입니다.

가끔 퇴근 후에 이용자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 가족들, 친구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작 30년 가까이 함께 한 부모님과 가족은 얼굴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부모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부모님을 뵈러 시골에 내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농사일도 돕고 하지만 그때마다 가만히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가족들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으신지요?

사람들은 10년, 20년 후 멋진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내일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 역시 내일을 꿈꾸며 평생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제 욕심만 채우려 좁은 시야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되기에 지금의 저를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며 보호해주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가족이 된 성프란치스코의집 가족들과 함께 오늘을 공유하며 내일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하루와 가족들의 하루를 함께하며 가슴이 따뜻해짐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지요.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방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삼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재희 삼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하늘방
서원용

하늘방에 성인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개인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언제나 따뜻함이 있는 교사와 동료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방
정화경

우리의 인권을 잘 보호해주고 친절한 삼촌이 되어 주세요.



하늘방
서광해

그냥 좋아요. 우리 집에서 가장 잘 생긴 삼촌이에요.



햇님방 새로운 가족

전지현 이용자

6월 15일 햇님방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예쁜 배우와 이름이 같은 14살의 전지현입니다. 지현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햇님방 가족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햇님방 교사
김현정 · 이미경

일반 가정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에 시설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보낸 시간이 많은 지현이에게 따뜻한 이모가 되어 잘 챙기겠습니다.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부도 더 많이 할거구요. 우선, 가정에서 생활할 때 사용하던 휠체어가 없어서 시설의 휠체어 한 대를 매일 학교에 가져갔다가 가져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현이 체형에 맞는 성인용 휠체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리치료사
김귀혜 · 김보순

지현이는 뇌병변 장애(하지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 바 잡고 서기, 네 발 기기, 워커 잡고 걷기 등의 재활훈련을 제공할 거예요.



햇님방
김보희 · 김은진

동생이 아직 우리 집 생활을 잘 모르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 줄 거예요.



햇님방 박영애

소꿉놀이나 공놀이를 진히랑 했었는데 이제 지현이도 같이 데리고 할 거예요.

또 하나의 ‘가정위탁’

☹️ 가정위탁은?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가정위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내에서의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으며, 단체생활에서 벗어나 일반가정을 체험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① 가정위탁 보호 신청인과 가족구성원의 신원이 확실한 가정
- ② 가족 구성원 모두 가정위탁 프로그램에 동의한 가정
- ③ 이용자에 관한 모든 일을 가정위탁 담당자와 상의, 결정할 수 있는 가정
- ④ 가정위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이용자를 따뜻하게 맞을 준비가 된 가정

☹️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능력향상 : 식사 및 인사예절, 신변처리, 정리정돈 등
- 가정 내 역할수행능력향상 : 가족 구성원에 대한 올바른 호칭사용, 구성원의 역할 이해 등
 - 위 탁 기 간 : 연중
 - 신청 및 문의 : ☎ 622-1652, 626-5766 생활재활팀장 홍해숙, 김대성

가정위탁 체험 후기

이정민(부산정보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은 김은진(여)을 매월 셋째 주말에 위탁하여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엄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 가정위탁을 알게 된 경로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소화영아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김은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화영아재활원은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길게는 두 달 짧게는 일주일 정도 가정위탁을 보냅니다. 시설에 있을 때 느끼기 어려운 일반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이 6살 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 위탁한 것을 계기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 오늘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 일반 가정의 입장에서 가정위탁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크게 웃을 일이 없었는데 김은진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빠를 김은진의 애교로 “은진이가 최고!!!”라고 할 정도로 가정에 활력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은진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 가정위탁 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은진을 처음 위탁하게 되었는데 가정에서는 반대 의견보다는 제가 직장을 다

니고 있어서 제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염려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한 달에 1회 1박 2일정도 위탁을 하면서 당연히 김은진이 집에 오는 것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김은진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시설 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의 평화로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여러 해 동안 실시한 가정위탁을 통해 교수님 댁에서의 김은진이란?

저희 집에 김은진은 막내딸이고 가족의 끈을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김은진과 함께 나들이를 갈 때도 막내딸로 소개하고 인사를 하지요. 처음엔 남편이 서먹서먹해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당연히 막내딸로 인정을 했습니다.



☹️ 가정위탁을 고민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김은진은 예의가 바릅니다. 저는 은진이가 위탁을 온다고 해서 특별한 스케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식사도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고요,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기에... 다만 내 아이가 오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합니다.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내 가족으로서 할아버지 댁에도 가고 이모 집에도 놀러갑니다. 놀이공원이나 연극도 보고, 미술관도 갑니다. 일정이 맞으면 가족여행도 함께 갑니다.(내 아이라고 받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탁은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을 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은진을 통해 베푸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감사합니다.

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태민 공익근무요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지관(남)과 서동민(남)을 위탁하여 1박2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 가정위탁을 알게 된 경로나 계기가 있었나요?

김지관과는 평소 친한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여서 집에 가서 재미있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가정위탁 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희 조부님께서 생전에 장애인복지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호의적이었습니다. 편하게 한다고 하셨지만 아이들이 온다고 하자 부모님들은 분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못 먹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아버지는 재미있는 게임거리가 있는지, 밖에 나가서 놀아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걱정하셨지만 막상 김지관을 보시고는 똑똑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 가정위탁 시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서동민은 활발해서 게임을, 김지관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채팅을 주로 했습니다. 식사시간에는 김지관은 형답게 대체로 잘 먹었지만 서동민은 편식이 있었습니다. 밤에 게임한다고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피곤해 하는 모습이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 가정위탁을 고민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가정위탁을 통해 김지관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시설로 돌아가는 날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시간을 내어 위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과 일반 가정 분위기에 차이가 있어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많아진다면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력도 향상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위탁은 어렵지 않아요!



가정위탁이라고 하면 이용자들이 심심할까봐 이벤트적인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고, 음식도 평소와 다르게 식단을 짜는 등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닌 진짜 우리 집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온 가족이 늦잠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하고, TV보며 대화하고, 형들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엄마와 함께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구입하는 일상이 궁금한 것입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4~6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횃수도 많았고요.

어린이 날 행사

5월은 푸르구나~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성프란치스코의집 꼬맹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 속의 꿈' 발레 공연을 본 후 맛있는 점심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후에는 아빠께서 선물을 나눠주셨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앞으로 더 사랑하기로 해요~! 그리고 어린이날 봄의 산타가 되어 피자 선물을 주신 이용원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행사

5월 8일 아버지날을 맞아, 아빠께 정성스럽게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을 담은 편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년의 날 행사

김보미, 김보희, 김세진, 백숙이, 신선교, 정유리, 정현욱의 성인됨을 축하합니다~ 원장아빠께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등 좋은 말씀을 듣고 가족들의 축하인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마침 성년의 날 행사를 하는 날 맛있는 피자를 후원해 주신 김윤희, 오재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성모의 밤

행사

우리 가족들이 머리에 왁스 바르고 꽃단장 하는 날! 항상 유니폼을 입는 이모와 삼촌들이 정장을 입는 날! 바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는 성모님을 기리는 성모성월에 준비한 '성모의 밤'입니다. 성모님께 씩씩드리기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화관이 예쁘죠?^^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장미꽃을 받쳤습니다. 성모님께 드릴 장미를 휠체어에 꽃은 우리 가족들을 보고 있노라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천사가 드리는 장미를 성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실 지... 이 날은 성프란치스코의집의 든든한 지원군인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을 기억하며 그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했기에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성모님께 전하는 편지를 각자 준비해서 올해는 어떤 어린이가 될 거예요~하면서 다짐을 하기도 하고 성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등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어떤 걸 말씀드리든 들어 주실 테니까요. ^^

여러분도 여러분을 응원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아마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 올 거예요. 성프란치스코의 집 가족들 모두 앞으로 더 사랑하며 지낼게요~



봄나들이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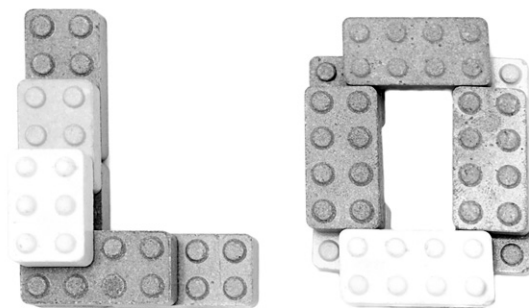
고리원자력본부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신 후원협의회, 수고해주신 민심사랑과 김경호 봉사자님, 그리고 장소대관에 협조해주신 고리원자력본부 숨은 꽃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성프란치스코의집을 사랑하는 다양한 모습

가족사랑도 플러스(+)

성프란치스코의집 사랑도 플러스(+)



가족이 함께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하며 성프란치스코의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기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오랜 기간 동안 성프란치스코의집 가족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어주고 계시는 후원자님들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할 기회가 많지 않아 어떨까 분들이 우리 집과 함께 해 주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후원자님 또한 여러분의 사랑으로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저희를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마련한 '가족사랑도 플러스(+)' 성프란치스코의집 사랑도 플러스(+)'에 후원가정을 초대합니다.

가족사랑도 플러스, 성프란치스코의집 사랑도 플러스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부모님과 청소년 자녀 간에 대화가 줄어든 요즘, 사춘기인 내 자녀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의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따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조금 쑥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의집이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하며 평소 나누지 못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건네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녀들의 인성발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프란치스코의집 가족들에게는 일반가정 내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등 가족 구성원의 역할 이해를 할 수 있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체험활동은 사회적 기능 향상을 통하여 사회적 재화를 촉진시키고, 심리적·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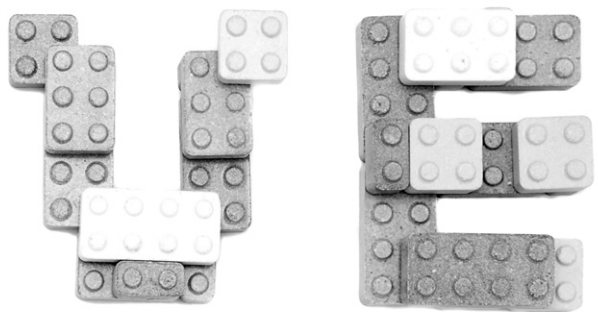
- 대상 : 중·고생 청소년 자녀가 있는
정기후원 가정 중 선착순 10가정
- 일정 : 7월 23일(토) ~ 7월 25일(월)
- 기타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신청 및 문의
: ☎ 622-1652, 626-5766
(후원담당 : 박민정, 서영섭)

날짜	시간	활동내용
7/23(토)	13:00~15:00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 및 참가자 인사
	15:00~17:00	시설환경정비 등 노력봉사
7/24(일)	10:00~14:00	부산아쿠아리움 관람 및 점심식사
7/25(월)	13:00~15:00	시설환경정비 등 노력봉사
	15:00~17:00	소감문 작성 및 활동평가

※ 가족 간 사랑도 커지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이번 기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우리은행** '투게더 우리사랑' 이 지원합니다.



온 가족의 성프란치스코의집 사랑 이야기

엄마의 복 짓기

정윤주 후원자님

“이제 네가 해라.” 아마 결혼할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챙겨서 하라시며 주시던 지로 용지. 어머니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세 자매 이름으로 각각 몇 군데 기부를 하고 계셨는데 그 중 한 곳이 여기 성프란치스코의 집이었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우리 세 자매 돌보라, 집안 일 하시라 그리 넉넉지만도 않았을 텐데 엄마는 가족들 이름으로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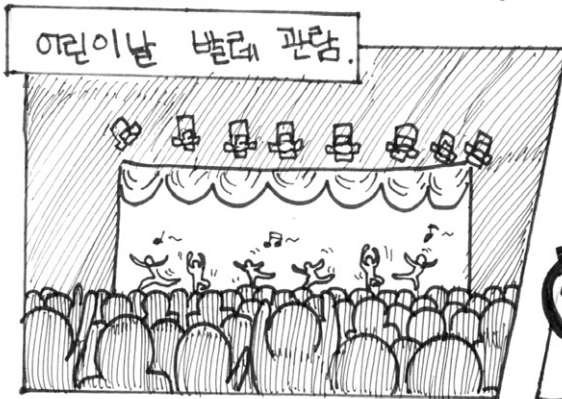
엄마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때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 지낸다면 그건 너희 복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엄마 손에 언제나 쥐어 있던 묵주. 저녁이면 켜지던 촛불. 엄마의 작은 나눔. 그리고 우리 집 팔팔 꿈나무(저희 아버지는 올림픽이 치러지던 1988년에 저희 집에서 제일 늦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아빠의 열심인 신앙생활. 그 모든 게 저희를 위한 복 짓기였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고 누렸던 복을 나누어 주고, 더 큰 복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가 해라” 하고 넘겨줄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더 큰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P.S 이렇게 글을 쓸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더 부끄러워집니다. 어찌 보면 나눔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나누어 받은 것인데 이 부끄러운 마음 또한 앞으로 더 큰 감응을 위해 쌓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주(가브리엘라) 후원자님 가정은 10년 가까이 김정현, 김지현, 김흥수, 정윤주 이렇게 네 가족이 모두 성프란치스코의집에 사랑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한 가정에 한 분 또는 부부의 나눔은 있어도 온 가족 나눔 사례는 많지 않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나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성장하여 나의 작은 나눔이 성프란치스코의집 가족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그 기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곳... 성프란치스코의집으로 당신을 보내세요.

자원봉사

(2011년 4월 1일 ~ 6월 30일)

| 가사지원-목록 |

곽승민 김성구 김우진 박상미 박수정 박재홍 배세현 윤종근 이가람
이정목 임민주 조은지
귀족의뜨락 라온공동체 대한적십자사보건교사회 부산30대의쉼터

| 가사지원-세탁 |

김미라 김영신 김정숙 노민자 서영숙 성곡지 이강연 채정숙 허경희
겸손하신모후(석포성당)/교회익어머니, 상지의옥좌, 슬기로우신어머니
(우동성당)/능하신정녀, 영광의성모(남천성당)/루르드의성모, 모든성인
의모후(광안성당)/성실하신어머니(연산성당)/위로자의모후(좌동성당)/
부산여성회관수선팀

| 가사지원-이·미용 | 박상숙 조민정

| 가사지원-주방 |

강연수 고봉희 권 혁 김나윤 김민지 김분자 김영혜 남보현 노경희
박삼식 박양주 박영자 백라성 이강상 이경자 이수선 임정숙 장소영
장승한 장영애 최진영 허숙자 홍수정
성가정의어머니(우동성당)/지혜로우신동정녀(남천성당)

| 노력봉사 |

김말분 백정희 정순자 지안순 최복례
국군지휘통신사령부55통신지원대대/국민연금남부산지사/국민은행두
경대못골존/망미독서회/동정녀들의어머니(남천성당)/바로미/부산은행
대연동지점/솔잎/여럿이함께/즐거움의원천(우동성당)/청소년1,2팀/파
라다이스면세점노동조합/해군작전사령부헌병전대/휴메트로청솔회
/NGEAL

| 업무보조 | 조석훈 PAM

|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

김민지 윤선미 정병헌
민심사랑/부산맛집술집/사랑나눔터/여럿이함께/정맥통도예교방/하얀
비둘기사랑모임

| 의료지원 | 김주영 노민자 천금자 뷰티스파부과

| 학습지도 |

강보라 김경연 김연정 박현준 박현희 백성희 손은선 이정민 장은아
장진경 조민정 정석규 최 환 한수빈



세탁봉사(월요일)



청소년 1팀



파라다이스 면세점 노동조합



국통사 55대대



해군 작전사령부 헌병전대



라온 공동체



적십자 보건교사회



부산 30대의 쉼터 & 귀족의 뜨락



국민은행 두경대 못골존



부산은행 대연동점



여럿이함께



바로미



국민연금 남부산지사



휴메트로 청솔회



엔젤



부맛술



민심사랑 & 하안비둘기



사랑나눔터



내성 로타렉트



수산물 품질검사원

후 원

(2011년 4월 1일 ~ 6월 30일)

| 신규후원 |

강구영 김영화 박치환 배기덕 이세영 이순하

| 개인후원 |

강수무 강승원 강영규 고남우 고영실 고평년 공병우 공숙희 공태임
곽영호 곽일수 구복연 권오봉 권택준 김경란 김경선 김경호 김국선
김귀혜 김근제 김근태 김기순 김대희 김도훈 김동준 김명환 김명희
김미리암 김미향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혜 김병주 김보순 김봉균
김상태 김선미 김성근 김송기 김수완 김숙희 김시교 김연수 김연순
김영철 김옥석 김유진 김윤성 김윤희 김은숙 김은영 김은주 김은희
김점규 김정남 김정범 김정영 김정욱 김정주 김정환 김중대 김중완
김주식 김주홍 김준희 김지영 김혜인 김현상 김현정 김현준 김현해
김형우 김효식 김희숙 남기환 남숙희 노명자 노병덕 노옥희 노현숙
도경민 도재훈 류애라 류양아 류용희 류인희 문병호 문영란 문종완
문희숙 민남식 박경숙 박광호 박민정 박상해 박선미 박성자 박승철
박영하 박영환 박은희 박재석 박주연 박지영 박태원 박혜경(마리아)
박혜경(오티리아) 박혜숙 배윤지 배윤희 배은옥 배일태 백광현
백운수 변시문 변재호 서승욱 서승환 서지호 석숙희 성락춘 성병호
성준민 성화자 손윤경 손종식 송금이 송수복 신구진 신민철 신순숙

신승인 신운봉 신준설 신현대 심영숙 안연순 안영태 안장근 양봉금
양신석 양항열 엄경희 엄갑훈 오희수 우재성 우창렬 유경국 유경근
유병규 유성재 윤도석 윤영철 윤종열 윤한기 이관상 이경자 이광선
이금숙 이대희 이동세 이득희 이명순 이미란 이미자 이병제 이삼주
이상룡 이상만 이수경 이신호 이영희 이옥분 이용복 이윤근 이은일
이임순 이재영 이재용 이재우 이재욱 이재훈(마티아) 이재훈(청솔회)
이정민 이정희 이종호 이진아 이찬구 이형래 이환용 임동현 임순애
임승재 임옥경 임웅혁 임인학 임철제 임춘희 장명숙 장지영 장현빈
장현지 전근향 전동진 전우석 정 란 정남희 정두환 정민선 정성민
정수태 정숙희 정승호 정영국 정영이 정용식 정윤주 정윤정 정은선
정종학 정진연 정찬중 정찬현 정춘자 정태성 정태용 정희정 조경숙
조말범 조영현 조옥련 조용철 조현호 주미혜 주선평 주성균 주정삼
지치안 진혜숙 천창호 최경남 최경실 최동훈 최만구 최민희 최병식
최복례 최서윤 최선애 최선일 최숙자 최순자 최승근 최안나 최영훈
최옥희 최용욱 최원만 최윤선 최중득 최진희 최창희 최혜순 최혜진
추미숙 하심근 하치순 하혜숙 한동이 한만식 한명관 한미애 한수남
한영희 한일선 허 현 허순이 현영호 현영실 홍해숙 홍혜순 황영복
황은숙 익 명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빠지신 분이 계시면 양해를 구하며 꼭! 전화 주세요~

담당자 : 박민정 ☎ 622-1652

◎ 후원금 계좌 및 예금주 변경 안내

- SC제일은행: 507-10-014294(변경)
- 우리은행: 1005-201-769468(변경)
- (예금주 : 성프란치스코의집)

※ 후원금 계좌의 예금주가 법인명에서 시설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제일은행의 계좌가 변경되었으므로 후원금 입금 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은산부인과/김재연한의원/김철현정형외과/동아대병원소아비뇨기과(조원열)/바른눈안과/박영호치과/박창수한의원/성모병원가정의학과(정현주)

| 기업후원 |

국민연금남부산신사/동서합동(관)/동성무역(주)/유카로오토모빌/파라다이스글로벌(주)

| 결연후원 |

공태섭 공태임 김상욱 김선자 김영순 김현정 박상현 박철재 서영섭 서원용 신은진 양희국 엄경호 이정민 이주한
녹천탕 영성학교 한국소방BS

| 단체후원 |

가톨릭설비회/고리원자력본부숨은꽃/남부경찰서여경회/대연성당성물방/부산동남로타리클럽/성모여자고등학교/우동성당/우리은행투게더지원사업/이마트단체지원/이즈PC방/제일은행대연동지점/평화장터/해피빈/후원회미사봉헌금/웨미리마트경성대3호점

| 물품후원 |

강동구 강영희 김민경 김민혜 김봉준 김진태 김현석 김현옥 송의자 오재철 유병규 이영섭 이용원 장영표 최경희 최상욱 최철호 최현석 최혜순 익 명
남천성결교회셋별반/대연방앗간/뚜레쥬르경성대푸르지오점/메츠베이커리/박창수한의원/배스킨라빈스경성대점/삼성책나눔지원사업/솔잎/식신가/씨티은행남천지점연계익명/아이들의집/아이올라/오프베이커리/은하유치원/질러라노래방3층/체리동산

| 2/4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수입		사용	
기부금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53,203,276	의료비	2,986,060
지정후원금	3,979,000	사무비	20,814,770
비지정후원금	39,008,355	사업비	10,181,952
결연후원금	400,000	재산조성비	5,462,000
계	96,590,631		39,444,782

| 2011년 추가경정 예산서 총괄표(2차) |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2차추경 예산액	구성비	증감
세 입	합계	1,577,320	100.00%	1,566,000	100.00%	-11,320
	사업수입	12,000	0.76%	12,000	0.77%	0
	보조금수입	1,213,078	76.91%	1,187,817	75.85%	-25,261
	후원금수입	220,000	13.95%	234,000	14.94%	14,000
	차입금	298	0.02%	239	0.02%	-59
	전입금	24,000	1.52%	24,000	1.53%	0
	이월금	92,644	5.87%	92,644	5.92%	0
	잡수입	15,300	0.97%	15,300	0.98%	0
세 출	합계	1,577,320	100.00%	1,566,000	100.00%	-11,320
	사무비	1,124,422	71.29%	1,113,734	71.12%	-10,688
	재산조성비	217,860	13.81%	208,160	13.29%	-9,700
	사업비	218,940	13.88%	228,040	14.56%	9,100
	잡지출	325	0.02%	406	0.03%	81
	예비비	15,773	1.00%	15,660	1.00%	-113

| 2011년 추가경정 예산서 총괄표(3차) |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예산액	구성비	3차추경 예산액	구성비	증감
	합계	1,566,000	100.00%	1,578,000	100.00%	12,000
세 입	사업수입	12,000	0.77%	0	0.00%	-12,000
	보조금수입	1,187,817	75.85%	1,180,825	74.83%	-6,992
	후원금수입	234,000	14.94%	250,000	15.84%	16,000
	차입금	239	0.02%	231	0.01%	-8
	전입금	24,000	1.53%	39,000	2.47%	15,000
	이월금	92,644	5.92%	92,644	5.87%	0
	잡수입	15,300	0.98%	15,300	0.97%	0
	합계	1,566,000	100.00%	1,578,000	100.00%	12,000
세 출	사무비	1,113,734	71.12%	1,127,475	71.45%	13,741
	재산조성비	208,160	13.29%	195,314	12.38%	-12,846
	사업비	228,040	14.56%	239,040	15.15%	11,000
	잡지출	406	0.03%	391	0.02%	-15
	예비비	15,660	1.00%	15,780	1.00%	120



| 후원안내 |

- 일 반 후 원 : 이용자(거주 장애인)의 생활과 서비스, 시설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자유롭게 후원
- 결 연 후 원 : 특정 이용자와 결연하여 후원
- 물 품 후 원 : 과일, 쌀, 간식류(빵, 떡, 유제품 등), 화장지, 디펜드 기저귀(소중형, 대형), 하기사 기저귀(대형, 특대형), 하기사 물티슈, 어린이 칫솔, 바디워시, 샴푸 등
- 지 정 후 원 :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랑을 나눠주시려면...

예 금 주 : 성프란치스코의집

SC제일은행 : 507-10-014294 / 국민은행 : 556601-01-233237 / 부산은행 : 036-01-033700-8

우리은행 : 1005-201-769468 / 농 협 : 936-01-105492 / 결연후원 : 이용자 개인 계좌

※모금함, 해피빈, 지역단체 마일리지제도(이마트 문현점, 연제점, 해운대점)를 통한 후원참여도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24조, 소득세법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담당자 : 서영섭, 박민정 ☎ 622-1652, 626-5766)

발행일 2011년 7월 15일(금)(제37호)
발행처 성프란치스코의집
발행인 임태호
편집인 박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6번길 51(대연동)
전 화 622-1652, 626-5766
팩 스 622-1625
홈페이지 www.franciscohome.or.kr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e-mail fran1652@hanmail.net
인 쇄 (주)아임커뮤니케이션

찾아오시는 길 >>>

